

농산물사업 부진 지역 농협들, 점포 신설 경쟁

전남본부 146개 지역농협 455개, 광주본부 14개 지역농협 108개 금융시장 포화에도 수익 창출 위해 은행 업무 눈돌려 신규 점포 놓고 인근 농협간 신경전... '제살 깎아먹기' 지적도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신규 점포를 잇따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포화된 금융시장에서 점포를 늘리면서 인접한 조합 사이에서는 미묘한 신경전마저 벌어지며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광주·전남에는 563개에 달하는 농축협 사무소가 있다. 광주지역에는 14개 지역농협이 108개의 분·지점을 냈고, 전남 지역에는 146개 농축협과 품목별농협이 45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 31곳·전남 67곳에 달하는 농협은행은 제외한 수치다. 전남본부 소속 농축협은 올해도 나주산포농협 빛누리지점, 여수원에농협 웅천지점 등 4개 점포를 내는 등 점포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역본부에 소속된 조합원이 31만3700여 명(전남 29만2790명, 광주 2만978명)인 점을 감안하면 1개 점포 당 조합원 557.3명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평균 22.8km(광주·전남 총 면적 1만2844km)마다 농축협 점포가 있다. 지역 농축협은 농산물 판매·가공·유통 등 경제사업이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예금·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사업장 개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 지역 농협들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도시에 신규 점포를 내는 추세다. 전남남농협은 지난 9월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두 번째 광주지역 점포를 냈고, 전남본부 소속 광주축산농협은 11번째 점포를 내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축협은 서구 마곡동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해 본점을 이전할 계획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 광주·전남 농축협 점포 현황

	농축협	분·지점수	조합원수
광주	14개	108개	2만978명
전남	농축협 138개	455개	4207개
	품목별 농협 8개	" 357개	31만3768명

(농협은행 제외, 자료: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남농협·광주축협과 같은 시기에 신설 신청을 낸 광주원에농협은 광주지역 농협과의 갈등으로 6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합원이 2900여 명에 달하는 광주원에농협은 지난 5월 전남본부에 첨단지구 점포 신설 승인 신청을 냈지만 현재까지 지역본부장 승인이 보류되고 있다. 광주비농협이 농협 광주본부에 승인 신청을 낸 신규 점포와 기갑다는 이유에서다. 농협 신규 점포를 내려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지원지도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상 점포간 400m의 거리제한이 있다. 신규 점포를 놓고 벌이는 지역농협 간 신경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조합원 500여 명을 둔 광주지역농협인

주노동조합은 지난 5월 전남지역 품목별농협 3곳의 광주지역 지사무소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남지역본부에 보내고 한 달 여 동안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전남본부 소속 농협의 지사무소 설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회원농축협이 관할 외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본부와 협의할 거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지만 중앙회 차원의 자금지원과 승진 등에 영향을 미쳐 조합 간 합의가 원칙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점포 간 거리 제한 조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조합 간 합의가 있으면 신설을 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6.60 (-28.72)	↑ 금리(국고채 3년)	1.46 (+0.01)
↓ 코스닥	635.99 (-13.88)	↑ 환율(USD)	1178.10 (+8.00)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 전분주택 29일 오픈

6만여㎡ 친환경공원 '공세권' 교통 편리·인프라 잘 갖춰져

6만여㎡ 규모 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 죽림' 전분주택이 오는 29일 문을 연다. 21일 여수 죽림지구 현대지역주택조합과 현대엔지니어링(주)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579번지에 '힐스테이트 죽림' (투시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는 '대한민국 명품지수아파트부문'에 8년 연속 1위에 꼽혔다. 지하 2층-지상 15층 총 18개동 규모로 지어지며, 59형 180세대·76형 240세대·84형 569세대 등 총 989세대가 들어선다. 이중 141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힐스테이트 죽림'의 가장 큰 장점은 6만여㎡ 규모 친환경공원을 품고 있는 '공세권'이라는 점이다. 아파트 단지 앞에는 6만여㎡ 규모의 상하수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인근에는

죽림근린공원이 위치해있다. 여수시는 '상하수공원' 6만2330㎡ 부지에 화훼원과 휴게쉼터, 체력단련장, 유아 숲체험원 등과 전망대,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꾸밀 계획이다. 녹지율은 8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교통편도 편리하다. 여수죽림지구의 중심에서 순천완주고속도로로 빠르게 연결하는 22번 국도와 여수시내로 가는 도원로가 단에서 바로 이어진다. KTX여천역을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과의 소통도 원활하다. 또 여수시청, 여수시립도서관,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롯데마트, 농협 등이 가까이 생활편리성도 높다. 초·중·고교를 포함한 학교예정부지가 잘 갖춰져 가족 단위 입주자의 교육환경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힐스테이트 죽림' 전분주택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7-16에서 만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일(현지시간)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LA 오토쇼'에 전시된 기아차 셀토스를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기아차 제공)

광주서 만드는 기아차 '셀토스' 내년 1분기 북미 진출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아차 소형 SUV(스포츠퉂유틸리티차) '셀토스'가 내년 1분기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 기아자동차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LA 오토쇼'에서 하이클래스 소형 SUV 셀토스를 북미시장에 처음 소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셀토스는 1.6터보 가솔린과 2.0 가솔린 두 가지 엔진을 북미시장에 선보인다. '기아 미국 디자인 센터'와 협업해서 기존 셀토스에 휠과 보조램프 등을 추가해 더욱 견고하고 스포티한 모습이 된 '셀토스 스포츠'를 전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는 북미 수출 셀토스 전량을 광주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또 2019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한 '하바니로(HabaNiro)' 콘셉트카도 이번 LA오토쇼에 함께 전시했다. 기아차는 LA오토쇼에서 메인 전시존과 친환경(ECO) 전시존 등을 마련하고 리오(프라이드), 옵티마(K5), 스티어링 등 승용 7대와 쏘울, 니로 HEV, 쏘렌토,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등 RV 10대 등 27대를 전시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가 '2019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개인 부문과 분임조 경진대회 부문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 2관왕에 올랐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국가품질경영·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금호타이어가 국가품질경영대회와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 2관왕을 차지했다. 금호타이어는 국가기술품질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국가품질경영대회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광주공장 직원들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공장 공장혁신파트 강두성 과장은 품질유공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강 과장은 현장 중심의 품질분임조 활동 운영과 현장 개선 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분임조 경진대회에서는 광주공장 직원 15명과 협력업체 '세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연합+세은' 분임조가 상생협력 부문에서 대통령상 금상을 받았다. 이번 분임조 대통령상 수상으로 금호타이어는 이 부문 4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호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은 "전 구성원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품질 혁신을 주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만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우수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대우플러스 '제품안전의 날' 장관상

대우플러스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제품안전의 날' 시상식에서 제품 안전성 강화 단체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며 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우플러스는 제품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부품 안전성 집중 관리, 제품 안전 전문가 육성 등 제품 생산에서부터 실제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최근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원인으로 알려진 프레온 냉매에서 친환경성과 에너지효율이 높은 대체냉매로 전환했고, 가스 배관의 용접 공법도 기존의 가스 용접 타입에서 부품을 밀착 고정시켜주는 형태의 락링(Lokring) 방식으로 변경해 기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대우플러스는 1967년 설립 이후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전장, 가전, 신기술 분야 등 사업을 하고 있다. 무경형 감치냉장고와 에어컨, 공기정정기, 제습기, 밥솥 등을 제조해 계열사인 위니아답체에 공급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